

장애대학생의 대학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충북 K대학교를 중심으로

이종남*

<국문 요약>

이 논문은 장애대학생이 대학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K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과거의 상처’, ‘새로운 경험’, ‘대학 내·외의 지원’, ‘달라진 모습’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더 풍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장애대학생, 대학생활경험, 질적 사례연구

*이종남(E-mail: jnlee95@naver.com)

학위취득대학: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현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본 논문은 2013년 극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논문접수일 : 2015년 3월 31일, 논문수정일 : 2016년 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월 22일

장애대학생의 대학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충북 K대학교를 중심으로

5

A Qualitative Case Study of School Life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 Focused on K University in Chungbuk **

Lee, Jong Nam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fo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various issues which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has experienced through their school life. To accomplish this aim, the researcher has collected data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in-depth interviews on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analyzed through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s. The researcher carried out the analysis within the case and the analysis between the cases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seven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o are in attendance at K University. As a result, the four subjects were grouped as follows: 'wounds of the past', 'new experiences', 'university and community support', 'appearance chang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suggested implications for supporting successful lives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put forward an opinion on the following study needed for obtaining richer information in this area.

[key words]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university life experience, Qualitative case studi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Far East University Research Grant (FEU2013R09).

I. 서론

교육은 인간을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확인하면서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한다.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의 역할이 법·제도적인 틀로 체계화되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이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인 기회부여의 의미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이경준, 2008).

이러한 의미에서 고등교육으로써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보편적인 권리의 보장과 장애 학생의 궁극적인 사회 통합에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정정진, 2007).

대학생활이란 최고의 교육 기관에서 지적·체를 고루 갖춘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험하고 활동하는 것을 뜻한다. 각 대학에서는 대학 교육 확대 및 직업재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하여 장애 학생 지원 센터의 설치와 대학 내 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러한 조치로 장애인에 대한 대학 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되면서 장애 대학생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에 대학의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장애 학생은 전문 대학 6명과 대학교 107명으로 113명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652명으로 약 6배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도 8개 대학에서 99개 대학으로 약 12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애 대학생이 비장애 대학생에 비해 제 연한에 졸업한 비율이 낮으며(김남순, 2011; 양재신, 2000), 학사경고를 받거나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남순, 2011; 김성애·박찬용 외 2003; 김진호, 2004). 이러한 현실은 대학 생활을 통해 자아 성장과 전문성 향상, 비장애 인과의 통합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지속적인 대학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특례 입학 제도가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기회 균등이라는 명분은 충족시켰지만 오히려 대학 사회의 새로운 갈등이 대두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김남순, 2011).

이처럼 장애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고등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각 대학의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 환경과 지원 서비스는 열악하여, 장애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받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대학에 들어간 장애대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국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김남순, 2001; 김헬레나, 2000; 양재신, 2000; 원종례, 2001; 이정윤, 1999) 가운데 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 및 부적응과 적응의 요인을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대학생들은 학습과 대인관계의 어려움(김동일·김혜영 2006; 이현수, 2009), 부모와 주변인의 적극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대학생활과 사회적 위치가 바뀜으로 인한 불안감(이용·이주화·이한나, 2001), 일반대학생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자존감 손상과 우울감(권현용, 김현미, 2004; 김자경, 강혜진, 2008)을 경험하였다. 또 대학생활의 부적응 요인으로 장애로 인한 어려움(육체적 통증, 이동, 의사소통, 홀로서기), 심리적 위축(소극적 대인관계, 취업에 대한 걱정, 자격지심, 소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 학업의 어려움과 도우미와의 불편한 관계를 언급하였다(최지영, 2009).

그러나 모든 장애대학생이 대학 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제시한 연구들에서처럼 대학생활을 통해 부적응을 경험하였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경험해가는 장애대학생들의 적응 과정을 살펴 본 연구들도 있었다.

이은진·유성경(2011)과 한경임(2006)은 질적 연구로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장애 대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과 관련된 중심현상을 ‘부담스러움과 서투름’, ‘한이 됨’으로 보고 중심현상을 생성시키

는 ‘환경적 어려움’, ‘장애로 인한 체력적 한계’, ‘대학진학 후 지원 부족’, ‘학업의 어려움’,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열등감’, ‘정서적 충격’이 인과적 조건이었으며, ‘제도적 지원의 한계’, ‘장애인식’, ‘대상자의 사회적 편견’, ‘사회·경제적 상태’, ‘교육·양육환경’이 맥락으로 작용하였고, 학업을 위한 개인의 태도/노력, ‘장애정도’와 함께 ‘지원’, ‘성격적 특성’이 중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장애수용’, ‘대인관계 확대’, ‘변화’, ‘자기발전’, ‘현실안주’, ‘혼란’이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최지영(2009)은 장애대학생 9명을 대상으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의 배려’, ‘인적네트워크 형성’, ‘학업수행을 위한 준비와 노력’, ‘긍정적 심리요인’, ‘예비사회생활로서의 의미부여’를 통해 대학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대학생들은 대학 생활에서 다양한 인과적 조건과 맥락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와 한계를 느끼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성향이나 행동 특성, 인적·제도적 지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 거쳐 대학 생활 적응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외에도 선행연구에서 장애대학생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체적 적응 향상을 위한 지원(석말숙·강동욱, 2005), 교수자의 태도개선(최민숙·김성애·박은애, 2002), 교육지원프로그램 분석(김진호, 2004), 총체적인 학습지원(김미

선, 2008; 김정진, 2004), 교육환경 개선(김남순, 2001), 등 장애학생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위하여 대학당국과 교수자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하는데(임미경·권요한, 2008), 이와 달리 대학당국은 본인과 가족이 책임져야한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김미선, 2008).

이처럼 장애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대상은 개별 연구의 연구자가 관심을 둔 특별한 사례로 의도적으로 목적 표집되며, 그 결과는 전체 집단에 대한 일반화가 아닌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해석 가능하다(김영천, 2012). 더욱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서울지역의 대규모 대학이나 지방의 경우 장애학생의 수가 많고 학교 내에 지원이 체계화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장애학생의 수가 많지 않은 K대학 규모의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질적 연구가 보다 다양한 환경에 놓인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통해 4명의 장애학생이 입학한 이래로 장애학생들의 입학이 증가하면서 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적절한 지원방안을 찾지 못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충북 소재의 K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경험을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K대학은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학부 재학생이 4,247명이며, 이중 장애학생은 23명으로 학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장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0.5% 정도로 아주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 중 사회복지학과 학생은 16명으로 대부분의 장애학생이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사회복지학과에서 장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 정도로 장애학생이 차지하는 학교 전체의 비율과 사회복지학과의 비율에 현격히 차이가 있다. 한편 K대학은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2011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우수지원센터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전임 직원이 아닌 겸직을 하는 직원과 조교 1명이 배치되어 있는 등 장애대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K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의 경험들을 분석함으로써, 대다수가 비장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회복지학과라는 특정학과에 비교적 많은 수의 장애학생들이 배치되어 있는 K대학교에서의 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요구는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한 후 대학 생활의 경험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된 대학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의 장애대학생의 대학 생활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었고 연구자들은 이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장애대학생들의 주관적인 의미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계를 가진 체계 내의 사례, 다양한 정보수집을 포함한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수집,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 등 질적 사례연구의 전형으로 언급되는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2010).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충북 소재 K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으로 하였다. 대학 입학 이후 일련의 경험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두 학기에 걸쳐 장애학생 및 도우미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수업에 참여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와 목표를 제시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남학생 5명은 지체장

애(2명)와 뇌병변장애(3명)가 있고, 여학생 2명은 모두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다. 참여자 모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1명만 대학을 입학하기 전까지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았고, 6명의 학생은 모두 고등학교까지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아왔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1>에 제시하였다.

<표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학년	성별	장애 유형	보장구	통학방법	
					입학시	현재
1	2	여	뇌병변	휠체어	기숙사	통학(자가용)
2	3	여	뇌병변	-	기숙사	기숙사
3	4	남	뇌병변	휠체어	기숙사	통학(학교셔틀)
4	3	남	지체	-	통학(학교셔틀)	통학(학교셔틀)
5	2	남	지체	-	통학(학교셔틀)	기숙사
6	2	남	뇌병변	-	통학(자가용)	통학(자가용)
7	3	남	뇌병변	-	통학(학교셔틀)	통학(학교셔틀)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면담과 관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장애대학생 7명과 1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포함한 사회복지학과와 장애학생들과 도우미학생

들과 함께 두 학기에 걸쳐 매주 1시간씩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 등에 장애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참여자인 장애학생 모두 1년 이상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동안 관찰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면접에 임하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구체적이고 깊은 경험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면접은 2014년 5월초에서 6월말까지 이루어졌다.

4. 자료분석과 글쓰기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 방법은 Kvale이 제시한 요약(응축), 범주화,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의미의 해석을 사용하였다(신경림, 1998). 이들 분석방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순환적, 교차적으로도 이루어진다.

먼저, 감지적 개념을 포착하기 위해 사례별로 자료를 읽고 대학생활 경험을 염두에 두고 각 사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했다. 이러한 사례별 분석은 사례 간 분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완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 경험의 개략적 구조를 밝힐 수 있었다. 다음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나온 이야기의 구조를 기반으로 자료에 대한 세부 분석을 시작하였다. 세부분석은 한글이름(Kvale)이 말한 요약과 범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미 분석된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을 확인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이다. 요약과 범주화는 의미단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의미단위들을 서로 연관되는 유사한 것들로 묶는 범주화(categorization)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의미의 해석은 앞에서 언급한 스토리텔링, 요약, 범주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된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해석하는 작업은 스토리텔링, 요약, 범주화 과정과 함께 이를 포괄하는 총체적 국면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요약과 범주화, 의미의 해석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는 다시 앞서 도출된 이야기 구조에 피드백되었다. 이 피드백 과정을 통해 이전 이야기 구조가 보완되고 일부 변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이 분석되었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장애대학생의 대학 생활경험은 ‘과거의 상처’, ‘새로운 경험’, ‘대학 내·외의 지원’, ‘달라진 모습’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들 과정이 항상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4개 과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과거의 상처

장애인의 대학생활이라는 고등교육의 기회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례전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서 초·중·고로 이어지는 것이 친구와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애인에게 초·중·고의 경험은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본

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일단은 대학은 오면 새로운 사람. 완전 다른. 왜냐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학교 안에서 소문이 다 돌아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이 있거나 친구들과의 그런 게 있으면 풀기가 되게 힘들어요. 대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같은 학교 다닌 친구를 찾기가 쉽겠어요?”(연구참여자 1)

“○○대가 만약 붙었어도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참여자 4)

“할머니 입장에서는 보통사람이랑 똑같이 대해주시는 것 같은데. 느낌상 찬밥, 찬밥 신세. 이게 상처는 아닌데 나한테는 상처인거. 말끝에 괜히 데리고 왔다고. 애네 데리고 오지 말지. 너네만 오니 ~ 그런 말을 자주 들으니까. 내가 잘못 한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예전같이 그러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따라서, 장애가 아닌 ‘나’에 대해 알기 전에 장애가 있는 나로 인식되어 온 것이 장애인에게는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었다. 장애학생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탈피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대학’이라는 곳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학생이지만 새로운 모습의 학생일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고1때까지는 좀 외로움은 많이 타고 고2때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차차 괜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원했다.

학교 내에서의 경험은 아니지만 일상 생활에서 오는 장애에 대한 무의식적인 차별이 점차 완화되기는 하지만 현재의 행동을 구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은 과거 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소문으로부터 단절되어 새로운 삶의 시작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대학생들은 장애대학생들의 기대처럼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주었다.

처음 경험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집을 떠나 친구들과 잠을 자고 온 첫 경험이었다. 장애대학생들이 그동안 경험한 학창시절은 비장애학생과 통합되어 있지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서 배제되었었다. 대학에 입학하여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도이고 도전이었다.

“처음에 오티가도 되요”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되죠.”라는 대답에 “솔직히 장애가 있어서 엠티, 오티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 행사 같은데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물어보면 그걸 대답 못하는 학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진짜 좋았어요. 물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가기로 마음먹고 2학년 때는 안가기로 했지만”(연구참여자 1)

“대학을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일은 과제 때문에 친구가 사는 집 근처에 놀러

가서 먹는 것 소개시켜주고 같이 보낸 것과 친구들과 셔틀버스 타고 시내에 나가서 자장면 사먹고 오는 길에 과수원에서 떨어진 복숭아 주워 먹었어요”(연구참여자 2)

“2학기 때 신문사를 하면서 즐거웠고, 저의 장점도 발견하고, 이번 연수를 갔다 오면서 수필형식으로나 기행문 형식으로 써보려구요.”(연구참여자 5)

“장애대학생만의 장애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쁜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5)

“뭔가 동아리 하면은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았어요. 막상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았어요. 잘 챙겨주고 먼저 인사해주고 그랬어요.”(연구참여자 2)

“처음에 동아리에서 만났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같이 해보려고 스마트폰바일과 애가 연락이 와서 손잡고 서울 가고, 처음에는 인원을 늘렸는데 그게 안 좋을 것 같아서 다시 기존 멤버로만 하자고.”(연구참여자 4)

학교 행사 및 학교 동아리 활동은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등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었고, 스스로 장점을 찾기도 하고 본인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포기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대학생활에서의 도전과 시도가 장애대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준 것은 아니었다.

“조깅 때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 다 짜놓고 제가 중간에 몇 명 없는 사람들 조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

간 친구들이 저한테 같이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연구참여자 3)

“사실 원래 조짜기로는 6명씩 짜기로 돼있었어요. 조인원수가, 자기들끼리(장애 학생 도우미) 그때 딱 6명을 맞춰놓고 끝해 버린 거예요. 저희는 당혹스럽잖아요.” 근데 “니가 알아서 해야지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연구참여자 1)

“애들끼리 얘기하고 카톡하고, 저는 개인 특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안받아 줄까봐, 안받아 줄까봐 두려움이 좀 ~ ”(연구참여자 10)

“날 안시킨다. 난 잘 할 수 있는데, 날 배제한다”(연구참여자 6)

“기숙사는 처음에 기숙사 들어가게 된 게, 기숙사 들어가면 친구들이 도와주고 밥에 야식시켜 먹고, 홈페이지보면 좋게 되어 있잖아요. 이불부터 시작해서 책상 ~ 이미지 좋게 되어 있잖아요.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예요. 들어가니까 너무 춥고, ~ 목욕할 때 목욕하는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지대가 없어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데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게. 내가 할 수 있는데 없는 이유로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연구참여자 3)

대학생활에서의 상처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더욱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소유자라 하더라도 내가 한 말에 대해 타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염려하며 제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나타내어야 하는 수업시간의 조별 과제를 수행 하는데에서

도 친구들의 처분을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경험들은 장애대학생들이 성장요인이 되고 있었다.

3. 대학 내·외에서의 지원

장애대학생에게 K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원이 장애학생도우미제도이다. 장애학생도우미는 이동에 제한이 있고, 필기에 제한이 있는 장애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또한 대학 생활의 낯설음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장애대학생들에게 친구가 주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장애대학생에게 도우미는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구의 역할 나아가 대인관계를 넓혀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한다는 도우미에 대한 왜곡된 생각 때문에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가 도우미를 하면서 ○○이가 선배들을 많이 아니까. ○○이가 많이 소개시켜줬죠. 이 형은 ○○형이고 누구누구형이다. 친하게 지내라”(연구참여자 3)

“서로 얘기해주면 고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우리 힘든 것 있으면 털어놓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지금도 털어놓기 너무 힘들어”

(연구참여자 1)

“도우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남자보다 불편한 게 있어요. 잘해주는 데 시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5)

“도우미가 다 잘해 주니까. 이동도 다 잘해주고. 그런데 조별과제에서요.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거~”(연구참여자 6)

“도우미랑 시간이 다르게 힘들어요. 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 해주길 바래요. 나는 불편하니까 밥 같이 먹고, 옆에 앉아주고. 그런거만 있으면 돼요.”(연구참여자 7)

Vaillant(1977)는 대학생 대상으로 한 추적연구를 통해 대인관계가 성인전기와 중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이 발휘한다고 했다. 장애대학생에게 있어 도우미와의 연결은 대학에서의 대인관계의 시작이며, 도우미를 통해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대인관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장애학생도우미 외에 대학 내·외의 편의시설 등 물리적 시설들이 친구들 사이에 긴장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장애학생 자신에게 좌절을 가져오게 하기도 한다. 반면 이동의 편의로 인해 육체적인 힘들 정도가 완화되면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등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숙사는 처음에 기숙사 들어가게 되게. 기숙사 들어가면 친구들이 도와주고 밤에 야식시켜 먹고, 홈페이지 보면 좋게 되어 있잖아요. 이불부터 시작해서 책상~”

이미지 좋게 되어 있잖아요.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예요. 들어가니까 너무 춥고, ~ 목욕할 때 목욕하는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지대가 없어.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데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없는 이유로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나니까.” (연구참여자 3)

“기숙사에 아는 친구도 생기고 룸메이트 언니가 되게 잘해줬어요. 맨날 맨날 같이 먹진 않았는데 그냥 개네방에 가서 같이 시험공부도 늦게까지 하다가 같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같이 나가서 먹었어요.” (연구참여자 2)

“집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데도 기숙사는 방향이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친구들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야만 했어요. 애들끼리*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고, 엄마보고 싶고~” (연구참여자 1)

“A동으로 옮기면서 가까워져서 그런면에서 되게 좋았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몸이 덜 힘들면서 정신적으로 짜증이 적어졌어요.” (연구참여자 3)

“1학년 때 수업들으러 올라가는 게 힘들었어요.” (연구참여자 2)

“차도 예약해야 하고 갑작스럽게 지금 만날래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니까. 가끔 우리과 애들보고도 만나자고 하는데 일정조율이 잘 안되니까. 우리 언제 볼래? 이 얘기가 잘 안나오죠.” (연구참여자 1)

* 기숙사에 있으면서 도우미들끼리 장애학생 본인을 두고 외부로 놀러나가는 상황을 말함. 연구참여자 1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로 같이 나갈 때 택시를 이용할 수 없고, 놀러 나가는 곳이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의도적으로 혼자 놔두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혼자 있는 상황이 됨.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에 가족의 역할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권석만(2010)은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라고 했다. 장애대학생의 행복의 원천도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때 가족의 지원은 도우미와의 관계에서, 동아리 가입에 가교 역할이 될 수 있다.

“저는 가족들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갔다오라고 말을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가족들은 그럼 가지마. 니가 가봤자 친구들이 도와주겠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니까 그게 좀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연구참여자 3)

“그 때 부모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애가 감정기복이 심할꺼다. 네가 가끔씩 자주 물어봐 줘라.” (연구참여자 3)

“엄마가 동아리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동아리 홍보하는 포스터 있었는데 엄마가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들어간다고 계속 했거든요. 뭔가 동아리 하면은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았어요.” (연구참여자 2)

“저 엄마한테 벗어나려고 기숙사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게 훨씬 불편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

4. 달라진 모습

인간은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해결 방법도 다양하다. 장애수용은 ‘장애정도’라는 장애조건과 ‘가족의 지원 정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관계형성, 학업과 동아리활동 등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장애대학생 본인이 스스로 노

력하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시도하는 주체적 대처전략을 통해 자신만의 대학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적응해가기도 하지만, 대인관계를 위해 편지를 쓰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설명하게 되었다. 또 자신만의 음악을 하고 정리를 하는 등 스트레스 해소법 찾아 해결해 가고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었다.

여전히 과거의 경험이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대학생활의 경험은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과 여유를 가져왔다.

“일단 여유가 있어요. 선배님들도 그렇고. 선배님들은 한 번씩 봤잖아요.” “이제 학교에 오면 두려움 보다는 오늘 뭘 일 있을까?” (연구참여자 1)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간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는 못해도 예전보다는 말은 붙임성 있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도우미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오히려 저 혼자하는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동이나 이런거에 있어서는 도움이 필요하고 하니까. 지금까지 도우미 했던 사람들에게 다 했어요. 내가 이렇고 이렇게 행동할꺼다. 이렇게 잡아 달라” (연구참여자 3)

“필기는 계속 부탁할 생각이예요. 불편한 것 없는데요. 저 혼자 스스로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꿔야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바꿔야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니까. 의사소통이 필요하니까.” (연구참여자 5)

“그냥 공부하고, 공부하기 싫은 때는 수업 끝나고 셔틀버스 타고 나가서 혼자 놀다 왔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먹고 싶은 것 사구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2)

“제가 학교 들어오면서 새로 만든 습관. 말로 못하는 것을 글로 쓰면 내 얘기 위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냥 말로 못하는 걸 글로 쓰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하고 내 얘기를 위주로 쓸 수 있다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연구참여자 1)

“그렇게 고등학교 때 힘든 어려움 겪은 것도 다 음악 때문에 다 음악으로 승화해서 버티어서 음악은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악도 듣고 하는데. 정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정리를 하면 풀리나봐요.” (연구참여자 3)

“사람들 만나는 거요. 제가 느낀 게 동갑인 제 또래 같은 친구는 좀 어색해요. 근데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이 나는 형, 누나, 어른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연구참여자 3)

“저희 과에 ○○언니가 있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언니가 좀 드러블 같은 거 생길 만하면 잘 조정해줘요. 언니한테 얘기하면 시원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언니한테 얘기하면 언니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연구참여자 1)

“제가 나이 든 친구들과하고 스스럼없이 지내요. 어린 친구나 동년배 친구는 웬지 모르게 힘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알고 있는게 많고 편하니까 말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한 후 대학생활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슈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장애대학생들을 접촉하여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사례연구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4개의 범주를 제시하면, ‘과거의 상처’, ‘새로운 경험’, ‘대학내·외의 지원’, ‘달라진 모습’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장애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대학생이 공통적으로 가장 좋았던 부분은 “관계에 대한 경험”이었고, 이 관계에 대한 경험과 중요하게 관련된 부분은 “도우미”였다. 그리고 장애대학생들과 함께 한 도우미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장애대학생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느냐에 따라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환경이 구성되지 않은 K대학에서 장애학생 도우미의 역할은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도우미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장애대학생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장애학생 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교육, 장애대학생과 도우미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이라는 곳이 고등학

교와는 다르게 같은 학과 학생이라도 선택과목에 의해 시간표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현재 일대일 매칭 방식에서 벗어나 활동별로 도우미를 배치한다면 장애대학생의 관계의 폭이 더 넓어지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본인의 노력이라는 점이다. 장애대학생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내향적인 학생도 있었고, 외향적인 학생도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활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학생도 있었고, 소극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면서 지내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향의 장애대학생이어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장애대학생 당사자가 느끼는 여유로움과 정서적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가정에서 통학을 지원하는 경우 가족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될 때 장애대학생의 기본적인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중 동아리활동 등은 대학생활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장애활동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통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장애대학생이 자신의 장애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향후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 내의 교수학습지원센터나 상담센터의 프로그램이 신청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입학 단계에서부터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극복방안을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비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과정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하며 그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려'라고 생각한 행동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배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선진 시민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과정을 통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대학생이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증의 장애로 이동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데 학교 시설 및 제도가 기본적인 선행조건이라는 것이다. 장애대학생들이 교내 기숙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일부 대학과 달리 K대학의 경우 보행에 어려움을 지원하는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기숙사라는 대학의 기본 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같은 부족한 부분을 도우미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서로 학생의 신분으로 불편함 없이 지원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증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만족정도는 교내 편의시설의 정도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대학에서는 중증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학교생활 편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이 전체적으로는

0.5%로 되지 않으나, 한 학과 차원에서는 7%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다소 특이한 형태를 가진 K대학교의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 경험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들의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 경험과 가장 큰 차이점은 '도우미'의 존재와 역할이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장애대학생과 함께 장애학생 도우미의 대학생활을 분석한다면 장애대학생의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_____, 2011,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권석만, 2010, 『인생의 2막 대학생』, 서울: 학지사.
- 권현용·김현미, 2004, “장애대학생의 자기개념과 우울 및 불안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서정신과학학회지』, 제7집 2호, pp. 43-56.
- 김남순, 2001, “장애학생의 특례입학과 대학시설 환경 및 제도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제36집 1호, pp. 81-100.
- 김동일·김혜영, 2006, “장애대학생의 특례입학과 대학시설환경 및 제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제36집 1호, pp. 81-100.
- 김동일·손지영, 2009, “장애대학생 수업지원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과 지원 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0집 1호, pp. 85-112.
- 김미선, 2008, “장애대학생의 대학 내 지원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및 요구”, 『특수교육학연구』, 제15집 2호, pp. 121-136.
- 김성애·박찬웅·이해균, 2003, “장애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제37집 4호, pp. 335-357.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자경·강혜진, 2008,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 비교”, 『중복지체부자유연구』, 제51집 2호, pp. 211-225.
- 김정진, 2004,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정책에 따른 정신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을 위한 학업지원서비스 도입방안 연구: 지원교육모델 중심으로”, 『정서·행동 장애연구』, 제20집 2호, pp. 97-124.
- 김진호, 2004,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분석”, 『인문과학논총』, 제 13집, pp. 119-136.
- 김헬레나, 2000,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학위 논문.
- 석말숙·강동욱, 2005,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 6집 4호, pp. 171-194.
- 양재신, 2000, “장애인 특례입학 장애대학생의 교육환경”, 『현장특수교육』, 제7집 5호, pp. 40-44.
- 원종례, 2001, “장애대학생의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연구』, 제8권 1호, pp. 47-70.
- 이경준, 2008, “장애인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정책변화와 지원요인 탐색연구: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확대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제24집 3호, pp. 103-130.
- 이용·이주희·이한나, 2011,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 연구”, 『특수교육』, 제10집 3호, pp. 245-268.
- 이은진·유성경, 2011,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제13집 2호, pp. 119-136.

-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3집 4호, pp. 1083-1115.
- 이정윤, 1999, “장애학생과 대학의 교육환경”, 『현장특수교육』, 제6집 4호, pp. 26-33.
- 이현수, 2009, “장애대학생들의 교육권의 고찰과 개선방안”, 부경대학교 장애인 인권과 재난관리 국제회의 세미나 (부산).
- 임미경·권요한, 2008,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0집 3호, pp. 147-172.
- 정정진, 2007,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8집 1호, pp. 109-132.
-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최민숙·김성애·박은애, 2002, “장애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교수의 인식”, 『특수교육』. 제1집, pp. 133-157.
- 최지영, 2009, “장애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제10집 4호, pp. 2571-2589.
- 한경임, 2006, “근거이론에 의한 장애 여대생의 생활경험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제8집 4호, pp. 255-279.

Reference

Vaillant, G, 1977, 『Adaptation to life』 ,
Boston: Little Brown.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Choi, Ji-Young. 200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by students with disabiliti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4): 2571-2589.
- Choi, Min-Sook, Kim, Sung-Ae & Park, Eun-Hye. 2002. "Professors' awareness of colleg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rch* 1:133-157.
- Han, Kyung-Im. 2006. "The Analysis on the Life Experienc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by Ground Theory"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8(4): 255-279.
- Im, Mi-Gyeong & Kwon, Yo-Han. 2008. "A Study on Professors and Students' Perception of Teaching-Learning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0(3): 147-172
- Kim, Dong-Il & Son, Ji-Young. 2009. "A Study on Instructor Perception and Support System for Teaching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0(1): 85-112.
- Kim Helena. 2000. "A Study on Higher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Kim, Mi-Sun. 2008.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Perception and Support Needs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the Support-service system of Univers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5(2): 121-136
- Kim, Ja-Kyoung & Kang, Hye-Jin. 2008. "Anxiety, Depression, and School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Inclusive Education experiences" *The Education Journa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51(2): 211-225
- Kim, Jin-Ho. 2004. "A Review Study on Educational Support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Soonchunhyang Journal of Humanities* 13: 119-136.
- Kim, Jung-Jin. 2004.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cademic Assistance Services for the Students with Psychiatric Disorders Following the Educational Wellbeing Policy for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At the Base of Supported Education Model"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abilities* 20(2): 97-124.
- Kwon, Hyeong-yong & Kim, Hyun-mi, 2004. "Effects of disabled college students' self-concept, depression and anxiety on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7(2): 43-56
- Lee, Eun-Jin & Yoo, Sung-Kyung. 2011. "A transformation process for disabled university students of university lif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 psychology 23(4): 1083-1115.
- Lee Kyong-Jun. 2008. "A study on the political change and support factors in the higher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focused on the expansion for education support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ocial Science 24(3): 103-130.
- Lee Woong, Lee Ju-hee & Lee Han-na.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ility Identify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Adjustment to College: Moderation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pecial Education Reserch 10(3): 245-268.
- Suk, Mal-suk & Kang Dong-wook. 2005. "A Study on the disabled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adaptation of college lif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4): 171-194.
- Won, Jong-Nye. 2001. "A Study on Support Service Program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8(1): 47-70.